

馬具로 본 우리나라와 중국 동북지방의 교류

장 윤 정*

〈목 차〉

- I. 머리말
- II. 마구 출토유적
- III. 중국 동북지방 출토 마구의 편년적 위치
- IV. 재갈로 본 鮮卑, 夫餘 그리고 匈奴
- V. 마구로 본 우리나라와 중국 동북지방의 교류
- VI. 맺음말

국문요약

우리나라 남부지방 마구문화의 출발점이 모두 중국 동북지방에서부터인 것에 반해 4세기대 중국 동북지방 출토마구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하는 시도에서 중국 동북지방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기원전후 몽골지역에서 활약했던 흉노가 남긴 마구 일부를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재갈을 중심으로 특히 재갈멈추개의 형태, 입문형태 및 面繫 고정 방식 등을 통해 양 지역의 재갈이 서로 연동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먼저 2孔式의 경우, 흉노 등 북방에서 확인된 것은 0.5~1.0cm 사이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삼국시대 자료가 대부분이며 면계의 규격은 대략 0.4~0.8 cm 사이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재갈멈추개의 형태나 재갈멈추개 자체에 구멍을 2개 뚫어 면계를 통과시키는 방법, 그리고 구멍에 의해 면계의 폭과 두께가 규제되는 점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前段階에 비해 다양한 유형이 알려져 있다. 재갈멈추개의 형태는 크게 棒狀(금속제, 유기질제 표비)과 板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문형태 역시 棒狀과 板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재갈멈추개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

가지로 棒狀이 板狀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棒狀의 입문 중 재갈멈추개에 고착된 입문과 유기질제 표비에 공반되는 棒狀 掛留式 입문용금구, 그리고 板狀의 입문인 雙孔立聞式과 板狀鉸留式 입문용금구 등의 형태와 규격에 근거한 결과 면계의 최대 폭은 대략 3cm 전후로 4cm 미만으로 규정될 수 있다. 또한 입문이 板狀인 경우, 棒狀인 것에 비해 면계가 움직일 수 있는 활용 공간이 좁기 때문에 입문크기와 면계의 규격에 대한 오차범위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재갈멈추개가 板狀인 것은 중국 동북지방의 4세기대 유적인 안양 효민둔 154호묘, 조양 원대자묘 등에서 확인되며 입문크기는 1.6~1.8cm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산 임당 G-6호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약 2cm 이내이고 재갈멈추개가 타원형이외에도 환상형인 유례들 역시 2cm 미만에 해당되어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유형에서 면계의 규격화 또는 일반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획기는 신라로 대두되는 경주에서는 월성로 기6호분, 금관가야의 중심지 김해에서는 대성동 41호분 단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우리나라, 중국 동북지방, 몽골지역, 흉노, 선비, 부여, 마구, 재갈, 면계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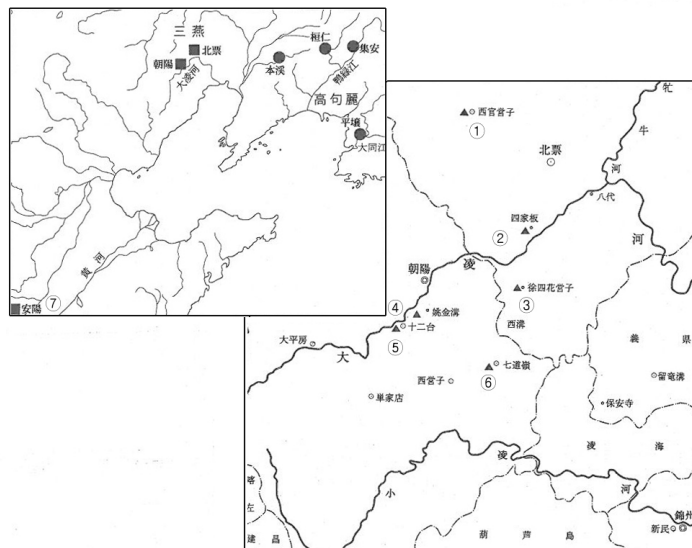
우리나라 기마문화의 복원에 있어서 가장 말미를 장식하는 것 중 하나가 기원이나 계보를 구상하는 것이다. 공반하는 토기나 철기 등을 이용하여 유적 내 상대순서, 혹은 지역별 병행관계를 결정한 후 상한연대를 부여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마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마구자체만으로 편년을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출되는 토기자료의 편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우리나라 마구 연구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과의 교류, 계통 등의 연구에서 필수불가결한 중국 동북 지방은 지리적으로나 시기적인 근접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일면으로 우리나라 마구연구의 경향은 중국 동북지방의 4세기대 자료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출토 마구 혹은 기마문화 역시 4세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동북 지방의 實物馬具가 알려진 1970년대부터 그 이후 급증한 발굴조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질과 양에는 그다지 커다란 변화는 없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하는 시도에서 중국 동북지방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시기적으로 기원전 3세기부터 이른바 선비계가 등장하기 이전 단계에 활약하였던 匈奴에 대해 주목해보고자 한다. 당시 흉노의 활동지역이기도 한 몽골지역에서부터 선비, 부여 등의 존재가 알려진 중국 동북지방,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유물이기도 한 마구를 중심으로 각 지역 간의 교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구자체의 형태적 변화의 중요성은 대다수의 연구 성과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마구 중에서도 안장, 재갈, 등자, 행엽 등을 말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面繫, 특히 재갈을 고정시키는 면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재갈과 면계가 연결되는 구멍, 즉 立聞 형태와 규격 등을 통해 재갈멈추개의 형태적 변화와 면계의 규격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기마문화의 변천에 따른 우리나라와 중국 동북지방에 있어서 상호간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신경철, 『加那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大史學』18, 釜山大學校史學會, 1994, 273쪽.

II. 마구 출토유적



도 1. 중국 마구 출토 유적²⁾

- ① 풍소불묘 ② 喇嘛洞유적 ③ 房身村 北溝묘지 ④ 袁台子壁畫墓
⑤ 十二台磚廠묘지 ⑥ 三合城墓 ⑦ 孝民屯 154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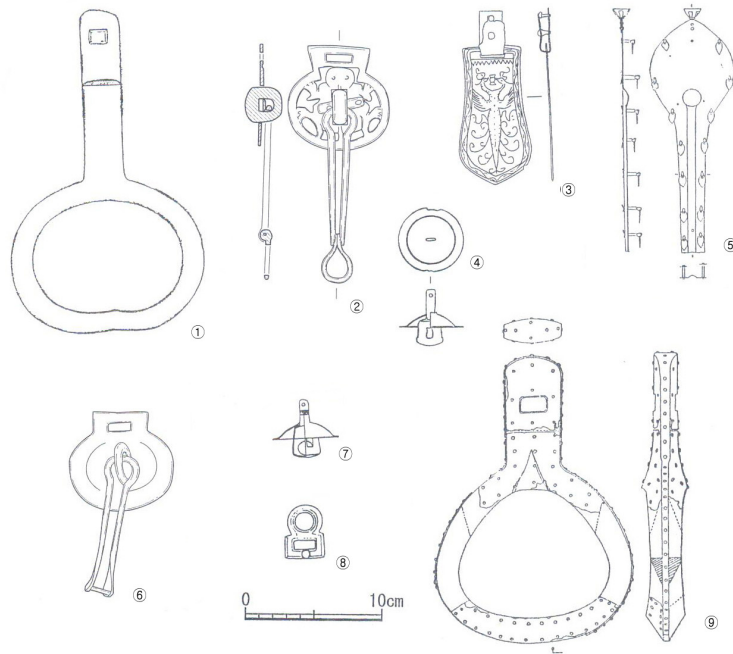
우리나라 출토 마구에 대한 고찰에 주로 언급되고 있는 중국 동북지방 유적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도 1). 여기에서 중국 동북지역은 주로 黑龍江省, 길림성, 요령성과 내몽고자치구 동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 서쪽에는 몽골이 위치하고 남쪽은 바다까지, 동쪽은 한반도와 연결되며 북쪽은 흑룡강과 오소리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연결하고 있다.³⁾

1. 풍소불묘

1965년 요령성 북표현 서관영자에서 석곽묘 2기가 발견되었는데 마구는 풍소불묘로 추정되는 1호묘에서 출토되었다(도 2-9). 1쌍의 등지는 뽕나무로 만들어진 木心 표면에 금동판을 보강하였으며 윤부 내측은 얇은 철판으로 고정하여 흑색을 칠하였다. 복원 후 길이는 23cm, 폭은 16.8cm이다.

²⁾ 奈良文化財研究所, 『三燕文物精粹(日本語版)』, 2004; 諫早直人, 『東北アジアにおける騎馬文化の考古學的研究』, 雄山閣, 2012.

³⁾ 손로, 『古代 東北아시아 車馬具와 騎馬具의 변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필자의 해석방식으로 일부 변경한 부분도 있다.



도 2. 중국 동북지방 출토 마구(1)(등자=1/4)
 ①~⑤ 안양 호민둔 154호묘 ⑥~⑧ 조양 원대자묘 ⑨ 풍소불묘

2. 喇嘛洞유적

라마동 유적은 요서구룡인 大凌河 곡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3~1998년 까지 연차적으로 발굴되었다. 그 가운데 1998년의 5차 발굴 규모가 가장 크고 총 369기가 확인되었다. 약보고서에 의하면 M202호 목곽묘, M266호 목곽묘에서 馬具가 출토되었다. M202호에서는 안장, 재갈 등이 확인되었으며 M266호에서는 철제 안장 교구, 등자, 운주 등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등자는 木心 주변 측면에 폭 1cm의 銅板으로 보강하였으며 현재 38개의 못이 잔존하고 있다. 운부 내측 못은 위에 3개, 아래에 4개가 사용되었으며 답수부는 돌출되어 있다. 등자 길이는 33.5cm, 넓이 17cm이고 운부의 직경은 10.6~11.3cm이다. 그 외 M101호에서 안장, 재갈 등과 함께 1970년, 1988년, 1995년에 수습된 안장과 재갈도 알려져 있다.

3. 北票縣 房身村 北溝 8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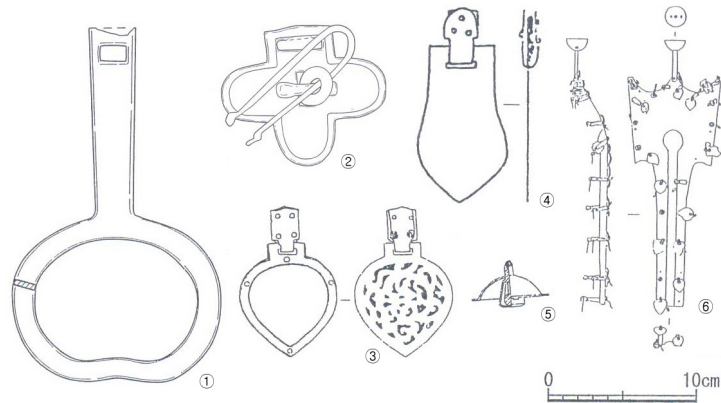
이 유적에서는 등자 한 쌍이 출토되었는데 木心 외부는 銅板을 보강하고 못을 박아 고정시켰다. 병부는 장방형이며 윤부 형태는 타원형으로 폭은 일정하다. 답수부는 위로 미세하게 돌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안장, 재갈, 마면, 銅泡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고 한다. 금속유물은 주로 얇은 銅板으로 만들어졌으며 부분적으로 금도금이 남아 있다. 연대는 兩晉의 교체시기인 3세기 후반기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袁台子壁畫墓

요령성 十二台營子公社에서 발견된 東晉시기의 벽화분으로 마구는 안교, 등자, 재갈, 행엽, 운주, 방울, 교구 등이 출토되었다(도 2-⑥~⑧). 이 가운데 碾鞍에 고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안교아래에서 등자 1쌍이 발견되었다. 목심에 가죽을 씌운 木心被革製 등자로 가죽위에 적색 구름무늬가 칠해져 있으며 금속을 덧붙인 흔적은 없다. 출토 상태에서 목심은 등나무 가지를 조합하여 輪上段에 삼각형 목제썰기를 끼운 후 가죽으로 덮었다. 총 길이는 28cm로 병부의 길이는 14cm이고 폭은 3.7cm이다. 윤부의 직경은 15cm, 그 폭은 2.5cm이다. 力革孔의 길이는 2.4cm, 폭은 1cm이다. 연구자에 따른 시기적인 위치는 3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까지 다양하나, 대체로 무덤구조와 출토유물 및 前燕의 요령성 서부 지역 존속시기 등을 고려하여 4세기 중엽대로 편년되고 있다.

5. 十二台鄉 磚廠 88M1호 전실묘

大凌河의 중류유역에 위치하며 1979년부터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와 朝陽市박물관이 1987년, 1988년, 1990년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988년 5월에 확인된 88M1호묘에서는 안교, 재갈, 등자, 행엽, 마면, 식금구, 운주 등이 출토되었다(도 3). 이 가운데 등자는 주조금동제이며 1점이 발견되었다. 전체길이는 41cm이며 병부 길이는 14cm, 병두부 폭은 4.5cm이다. 윤부와 연결되는 부분의 폭은 2.7cm이다. 윤부는 외경 16cm, 내경 12.3cm, 높이 9.2cm, 두께는 0.5cm이다. 등자 외부에는 칼에 찍힌 흔적이 9곳 정도 발견되고 있어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자는 이 무덤의 연대를 4세기 중엽 이전으로 효민둔 154호묘보다 한 단계 빠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도 3. 중국 동북지방 출토마구(十二台鄉磚廠88M1호묘)(등자s=1/4)

6. 三舍城유적

요령성 조양현 삼합성촌에 위치하며 안장, 재갈, 등자, 마면 등이 출토되었다. 등자는 木心金銅板被製로 1점 발견되었다. 총 길이는 30.5cm이고 병부 길이 17cm, 폭 4cm이다. 타원형의 윤부 내경은 약 12cm, 윤부 폭은 2.5cm이다. 병부와 윤부의 표면에는 못구멍 흔적이 남아 있다. 답수부 중앙은 약간 위로 돌출되어 있으며 윤부 내측면의 파편 폭은 약 1.5cm정도이다. 보고자는 출토 토기가 前燕 건국이전의 모용선비인 舍根, 六家子, 北票房身墓 등의 출토품과, 그리고 마구도 원대자벽화묘, 효민둔 154호묘 등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3세기 중엽~4세기 전반기로 편년하고 있다.

7. 安陽 孝民屯 154호묘

이 유적은 前燕이 中原으로 이동한 후 남겨진 모용선비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안장, 방울, 등자, 마면, 식금구 등이 확인되었다(도 2-①~⑤). 등자는 金銅板製로 單鏡이며 총 길이는 27cm이고 두께는 0.4cm이다. 답수부 중앙이 약간 돌출되어 있으며 윤부의 외경은 16.4cm, 윤부 폭은 1.8cm이다. 병부의 길이는 14.5cm이고 그 폭은 3.1cm이다. 출토상태에서 등자는 안장의 왼쪽 前方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자는 절대연대가 있는 長沙市 金盆嶺 21호분(302년) 출토 陶俑을 單鏡으로 규정하고 4세기 초~중엽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유적의 경우, 모용선비가 중원으로 진출한 시점인 4세기 후반기로 규정하였다.

Ⅲ. 중국 동북지방 출토 마구의 편년적 위치

기마문화에 대한 연구 초창기에는 마구 중 등자에 주목하여 그 계보를 구상하였다. 기본적으로 토기나 철기 등을 이용하여 유적 내 상대순서를 정하거나 지역별 병행관계를 결정한 후 시기를 부여할 때 등자로 상한 혹은 하한연대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중국 동북지방 출토 자료의 연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표적인 연구자로 최병현⁴⁾과 신경철⁵⁾ 등을 들 수 있다<표 1>.

표 1. 연구자별 유적의 편년적 위치

	金盆嶺 21호묘	象山 7호묘	馮素弗墓	효민둔 154호묘	원대자묘	七星山 96호묘
최병현	302	322	415	4세기 초~중엽	4세기 초~중반	4세기 초~중반 (보고서)
신경철	302	322	415	4세기 초~중엽	4세기 전반	5세기 중엽

첫 번째는 陶甬을 통해 등자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다. 최병현의 경우, 고신라에 등자가 전래된 시기는 중국 동진대초 江南지방에 쌍등자가 전래된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이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등자의 파급은 서진 말 중국 북방 기마민족들의 대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적석목곽분의 출현 시기는 신라에서의 등자 출현시기와 상응하다고 이해하여 등자의 연대로 적석목곽분의 상한연대를 고찰하고 있는데 이때 쌍등자가 출현하는象山 7호묘 출토 陶甬을 고려하여 4세기 초로 추정하였다.

두 번째는 풍소불묘(415)에 관한 평가이다. 최병현은 풍소불묘 출토 등자와 고신라 초기 출토품을 비교하여 前者를 기능적으로 발달된 형태로 추정하였다<표 2>. 그리고 풍소불묘 출토품이 동아시아 단병계 등자의 가장 古式이라는 것에 반대하였다.

4) 최병현, 『古新羅 鎧子考』, 『崇實史學』1, 崇田大學校史學會, 1983 ;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 『新羅古墳 編年の 諸問題 : 慶州·月城路·福泉洞·大成洞古墳의 상대편년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30, 한국고고학회, 1993.

5) 신경철, 『古式鎧子考』, 『釜大史學』9, 釜山大學校史學會, 1985 ; 『伽耶의 武器와 馬具 : 甲冑와 鎧子を 중심으로』, 『國史館論叢』7, 국사편찬위원회, 1989 ; 『伽耶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大史學』18, 釜山大學校 史學會, 1994 ;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 金官伽耶 이해의 一端』, 『釜大史學』19, 釜山大學校史學會, 1995 ; 『福泉洞古墳群의 甲冑와 馬具』, 『제1회 부산광역시립북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 가야사 복원을 위한 북천동고분군의 재조명』, 부산광역시립북천박물관, 1997.

표 2. 풍소불묘 출토 등자와 고신라 초기 출토품 비교

	馮素弗墓	古新羅
형태	木棒 일부가 노출된 金屬板張木製등자	전면을 금속판으로 씌운 木心金屬板被등자
윤부	삼각형	타원형에 가까운 것
윤부단면	截頭正三角形	梯形
답수부	발 딛는 부분뿐만 아니라 윤부 상단까지도 똑같이 병부보다 두꺼움	초기-윤부나 병부와 같은 두께 후기-발 딛는 부분만 넓어짐

이에 반해 신경철은 등자의 형태를 2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祖型을 A형은 효민둔 154호묘, B형은 풍소불묘로 추정하였다. 또한 小野山節의 등자 新古型式을 도입하여 古式의 하한기준을 행엽이 존재하는 부산 복천동 10호분·11호분으로 설정하였다. 덧붙여서 부산 복천동고분군에서 빠른 단계에 속하는 35호분·36호분의 연대를 410년경으로 추정하여 4세기대 한반도 출토 등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원대자묘이다. 신경철은 원대자묘 출토 등자를 4세기대 B형 실물 등자의 유례라고 하였으나 전장이 28cm(前記에 규정한 A형의 특징)인 것에 대해 절충형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행엽의 존재유무로 新古를 나누었던 것을 철회하였으나 연대관에는 변화가 없다.

네 번째는 七星山 96호묘이다. 두 연구자 모두 출토된 마구 중 등자에 주목하고 있으며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과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시기적인 위치를 보면 최병현은 보고자와 마찬가지로 구연부가 심하게 외반되지 않고 복부에 4타가 달리지 않은 黃釉陶器, 龍手柄 청동초두(하한 4세기 전반기의 笮代)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마구의 연대로 삼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희준의 연구성과를 들 수 있다.⁶⁾ 칠성산 96호묘 출토 등자는 풍소불묘 출토 등자(415)와는 계보를 달리하며 그 연대는 4세기 후엽이라고 하였다.

한편, 신경철은 공반하는 토기와 철기에 주목하여 경주 황남동 14호분 제1부곽과 고령 지산동 32호분 등의 출토품을 복천동 10호분·11호분보다 後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新式등자 A형으로 규정하였다. 이들과 동시기의 것으로 황

⁶⁾ 이희준, 『경주 皇南大塚의 연대』, 『嶺南考古學』17, 영남고고학회, 1995 ; 『경주 월성로 가-13호 積石木槨墳의 연대와 의의』, 『碩晤尹容鎮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1996 ; 『4~5세기 신라의 고고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 『韓國考古學報』59, 한국고고학회, 2006 ;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남대총 남분과 칠성산 96호묘 출토품을 위치지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부지방과의 교류에 있어서 최병현은 북방적 전통을 가진 적석목곽분과 마구 및 장병계 등자가 함께 신라에 들어왔으며 단병계 등자는 중국 남조에서 백제, 백제에서 가야, 신라, 그리고 일본으로의 경로를 상정하였다. 이에 대해 신경철은 4세기대 중국의 실물등자에 원류를 둔 등자가 5세기 초 고구려 갑주문화의 남하와 함께 영남지방으로 유입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4세기대 실물 등자의 전형적인 예인 중국 안양 효민둔형(A형)과 조양 원대자형(B형) 등자의 계보들이 부산 북천동고분군과 경주 황남동 109호 3·4곽을 비롯한 영남지방의 5세기 전반대 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고 하였다.

1990년 이후 신경철은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부산 북천동고분군 출토 토기 편년표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 출토 마구는 4세기 전반대부터 출현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가장 이른 유례가 북천동 69호분으로 4세기 2사분기에 편년하였다. 여기서 출토된 재갈에 착안하여 夫餘 무덤일 가능성이 있는 楡樹老河深 中層 56호묘 출토품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4세기 3사분기로 추정한 대성동 41호분 출토 板轡를 기존의 4세기대 자료인 효민둔 154호묘, 원대자묘, 본계진묘 등의 재갈(鮮卑系)과 관련짓고 있다. 그의 기존 학설인 5세기 초 고구려 마구문화의 영향을 지속하는 결과물로 19cm정도 길어진 2조선 인수를 들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의 연구 성과에는 김두철⁷⁾, 이상률⁸⁾, 류창환⁹⁾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백제지역 역시 출토 표비에 주목하여 효민둔 154호묘, 원대자묘, 본계진묘 등 선비·고구려계통의 초기 재갈에서 확인되는 짧은 인수와 같은 흐름의 것으로 이해하고 백제 초기마구의 도입을 4세기 초부터 전엽경으로 추정하였다.¹⁰⁾ 그리고 삼자루형을 가진 봉명동 C-31호분 예가 가장 古式인 유수노하심 중층 56호묘 출토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4세기 전반으로 시기를 설정하였다.¹¹⁾

이와 같이 중국 동북지방 출토 자료는 우리나라, 즉 한반도 남부지방 출토

7) 김두철, 『三國時代 轡의 研究 : 轡의 系統研究를 中心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신라마구연구의 몇 과제』, 『신라문화』1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8 ; 이난영·김두철, 『韓國의 馬具』,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9.

8) 이상률, 『三國時代 馬具의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9) 류창환, 『環板轡의 編年과 分布』, 『伽倻文化』13, (재)가야문화연구원, 2000.

10) 성정용, 『中西部 馬韓地域의 百濟領域化過程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05~123쪽.

11) 박중근, 『百濟初期馬具小考 : 淸州 鳳鳴洞 出土 轡를 中心으로』, 『호서사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百濟文化의 몇 問題』, 호서사학회·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2, 32~34쪽.

마구의 기준으로서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삼국시대 출토 마구를 4세기 이전으로 편년지을 수 없는 하나의 장벽이기도 하다.

IV. 재갈로 본 鮮卑, 夫餘 그리고 匈奴

우리나라 마구 연구에서 가장 일반화된 용어 중 하나가 鮮卑系, 夫餘系 등이다. 鮮卑는 漢, 曹魏, 晉, 五胡十六國, 南北朝 시기에 걸쳐 중국의 북방 및 동북지방에서 활약하였던 유목민족이다. <魏書>에 의하면 선비는 원래 東胡의 후예로서 기원전 3세기 말 흉노의 冒頓이 東胡를 크게 격파하자 요동의 塞外로 물러나면서 그 일부는 선비산으로 퇴각하고 일부는 烏桓(혹은 烏丸)山으로 물러나면서 각기 선비와 오환으로 구별되었다고 한다. 중국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선비와 오환으로 나누어지게 된 시기부터 기원후 2세기 중엽에는 檀石槐, 3세기 전반에는 軻比能을 중심으로 부락연맹을 구성하였다. 그 시기의 유적으로는 내몽고 동부 呼倫貝爾盟, 興安盟, 通遼市와 적봉시, 그리고 길림성 서부지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¹²⁾

夫餘는 송화강 상류의 넓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기원전 3세기 이전의 『山海經』과 사마천의 『史記』 貨殖傳에 서술되어 있으며 기원전 4세기경에 건국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³⁾ 부여의 대표적인 유적인 榆樹老河深遺蹟은 청동기시대인 西團山문화의 주거지 및 隋唐시기의 말갈의 무덤과 함께 서력기원 전후 시기에 조성된 무덤 130여기가 조사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선비의 무덤이라고 추정하였지만 중국 연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자 중에서도 부여 무덤의 가능성을¹⁴⁾ 제시하고 있다. 한편, 마구에서 재갈 인수의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과 함께 토기 등의 다량 부장이라는 厚葬, 人馬의 희생, 蒙古鉢形冢·掛甲, 도질 토기의 출현, 오르도스형 동북의 제작지 문제, 刀·矛와 같은 무기류를 일부러 구부러 무덤에 부장하는 습속 등에서 가야초기 마구 계보가 부여의 마구문화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⁵⁾

이러한 두 종족 선비와 부여의 무덤에서 출토된 마구와 관련지어 우리나라

12) 박양진, 「중국 동북지방의 鮮卑 무덤 연구」, 『百濟研究』32, 백제연구소, 2000, 2·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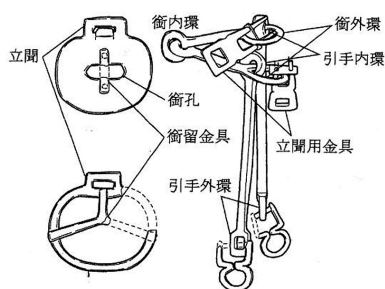
13)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1997, 85쪽.

14) 박양진, 「墓葬資料의 社會的 分析和 榆樹老河深墓地의 一考察」, 『韓國上古史學報』29, 한국상고사학회, 1998, 8·12~14쪽.

15) 신경철, 앞의 논문, 1994, 285~286쪽.

삼국시대 마구를 선비계, 부여계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습속으로 규정된 요소 중에는 선비와 부여에만 있는 것으로 한정되기보다는 北方文化 전체에서 확인되는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3세기부터 일명 선비계가 등장하기 이전 단계의 匈奴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선비 혹은 부여의 마구가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선비나 부여 이전 단계에 해당되는 마구와의 공통성 혹은 차별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흉노는 문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최소한 흉노제국을 세운 冒頓單于의 재위기간(기원전 209~174)인 기원전 3세기 때에는 거대한 고분과 성지 등 제국의 징후가 고고학적으로 간취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조사된 대부분의 고분연대는 기원전 1세기 중반~서기 1세기대에 집중하고 있다.¹⁶⁾ 출토 마구에는 안장, 재갈, 마면, 식금구, 행엽 등이 알려져 있다.¹⁷⁾ 먼저 재갈(도 4)의 종류는 鑣轡에 해당되며 銜은 철제 2연식이고 함의 내환과 외환은 단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鑣는 유기질체와 금속체가 있으며 몸체에 2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2孔式이라고 할 수 있다. 금속제 표의 경우, 장방형 철판 중앙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2개의 구멍이 위치하고 각 구멍을 기준으로 양단의 철판을 약 90° 정도 비틀어서 형태를 만들거나 장방형 몸체 양단에 원형 철판을 부착, 혹은 梯形으로 넓힌 형태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에 착안하여 흉노의 재갈을 I-직선형, I-원형, S자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¹⁸⁾ 銜과 鑣의 결합된 상태를 보면 함 외환이 표 몸체에



도 4. 재갈 세부 명칭도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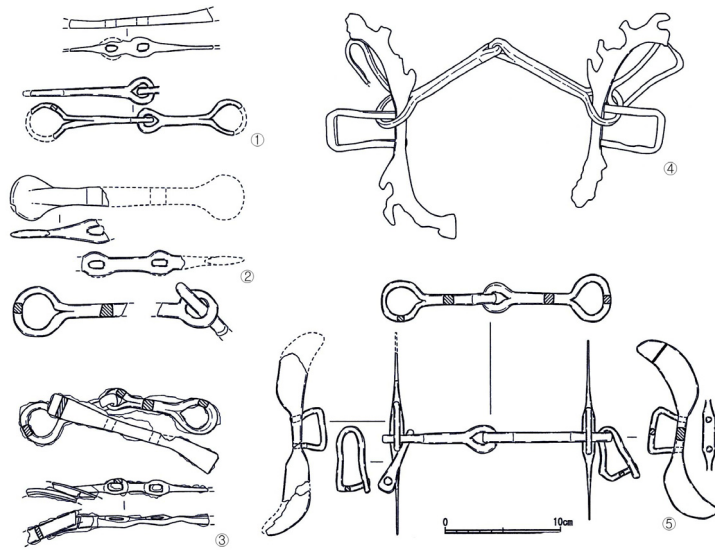
16) 강인욱, 『흉노와 동아시아 : 흉노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구축을 겸하여』, 『부경대학교 · 중앙아시아학회 2010년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고대문화 속의 흉노』, 중앙아시아학회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14쪽.

17) 국립중앙박물관, 『몽골 흉노무덤자료집성』, 2008.

18) 장은정, 『匈奴係 鑣轡의 확산과 고대 동아시아의 기마 문화 수용』, 『中央 아시아 研究』17, 중앙아시아학회, 2012, 187~188쪽.

제작된 2개의 구멍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인수가 잔존하지 않는 것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공반하는 형태로 추정된다. 인수는 2조선이며 하나의 철봉을 구부려 긴 타원형, 혹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어 마무리하였다.

諫早直人は²⁰⁾ 흉노 재갈 중 鑣의 형태에 주목하여 2孔式과 立聞式으로 나눈 후 전자는 기원전후, 후자는 3·4세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도 5). 이러한 차이는 면계와의 연결방법과도 관계가 있으며 계통이 아닌 시간적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로 생각하였다. 또한 김두철은²¹⁾ 지산동 32호분 출토 재갈의 鑣나 표비에 동반된 각종 입문용금구의 형태에 근거하여 삼국시대 표비는 두락과의 연결이 ‘一本條’이고 전 시기의 표비나 유라시아지역에 널리 유행한 ‘二本條’의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능의 변화를 호족계 판비의 영향이라고도 하였다. 한편 면계, 즉 繫의 폭이 시기와 사용되는 곳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²²⁾



도 5. 2孔式과 立聞式 유례

- ① 노용 올 4호묘 ② 노용 올 29호묘 ③ 도르릭나르스 1호묘
④ 집안 만보정 242-1호묘 ⑤ 충주 금릉동 78-1호묘

19) 諫早直人, 앞의 책, 2012.

20) 諫早直人, 『製作技術로 본 夫餘의 轡와 韓半島 南部의 初期 轡』, 『嶺南考古學』43, 영남고고학회, 2007, 16~25쪽; 앞의 책, 2012, 101~10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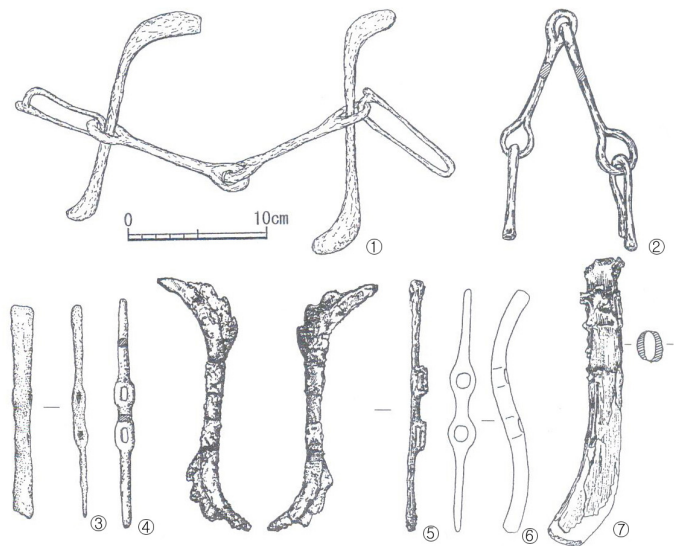
21) 김두철, 앞의 논문, 1991, 35~36쪽; 이난영·김두철, 앞의 책, 1999, 122~123쪽.

22) 이은석, 『고대 동북아시아 계(繫)에 관한 연구』, 『中央考古研究』11, 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2, 89~136쪽.

상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재갈 중 鑣의 형태에 근거해서 두락, 정확하게 面繫 중에서도 頭繫의 변화상을 선비, 부여 그리고 흉노의 유례들을 이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부여 유적으로 소개된 우수노하심 1호, 97호, 11호, 56호 등의 출토품은 표의 형태가 2孔式이며 표의 양단을 넓게, 혹은 S자형으로 구부리거나 문양을 장식하고 있어(도 6) 흉노 재갈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단계에 확인되고 있다.

우수노하심유적과 라마동유적 출토품이 막대모양 鑣가 대부분인 것에 반해 안양 효민동 154호묘, 조양 원대자묘 등의 출토품은 타원형 재갈멈추개(鏡板)에 입문이 달려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재갈멈추개의 형태적 차이는 단순히 모양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면계에도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궁금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기적인 변천은 두락이 2本條에서 1本條, 혹은 2孔式에서 立聞式으로 변화한다는 선학들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리고 면계와 관계가 있는 재갈멈추개의 구멍 혹은 입문의 크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미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면 2孔式의 유례는 <표 3>과 같다. 계측에 사용된 자료의 개체 수는 적지만 대략 구멍의 짧은 쪽은 0.5~0.6cm 정도, 긴 쪽의 폭은 1.0~1.2cm 정도가 대부분이다. 구멍크기로 추정할 수 있는 면계의 굵기는



도 6. 우수 노하심유적 중층 출토 마구
 ① 56호묘 ②④ 97호묘 ③ 1호묘 ⑤ 11호묘 ⑥ 103호묘 ⑦ 3호묘

표 3. 2孔式 재갈의 면계 폭(단위 : cm)

유적		구멍(1) (가로×세로)	구멍(2) (가로×세로)
노용 올	4호묘	0.5×1.0	0.6×1.0
노용 올	29호묘	0.6×1.0	0.5×1.0
호르긴톨고이	1호묘	0.6×1.2	0.6×1.2
유수노하심	97호묘	0.6×1.0	0.5×1.0
유수노하심	103묘	1.0×1.2	1.0×1.2

※ 구멍(1)은 도면의 왼쪽, 구멍(2)도면의 오른쪽, 鑿를 세웠을 때의 가로 폭과 세로 폭

1.0~1.2cm가 최대치일 것이다. 이들 몽골지역 출토 흉노 재갈에 제작된 구멍의 가로와 세로 폭은 다른 유례들에 비해 좁은 편에 속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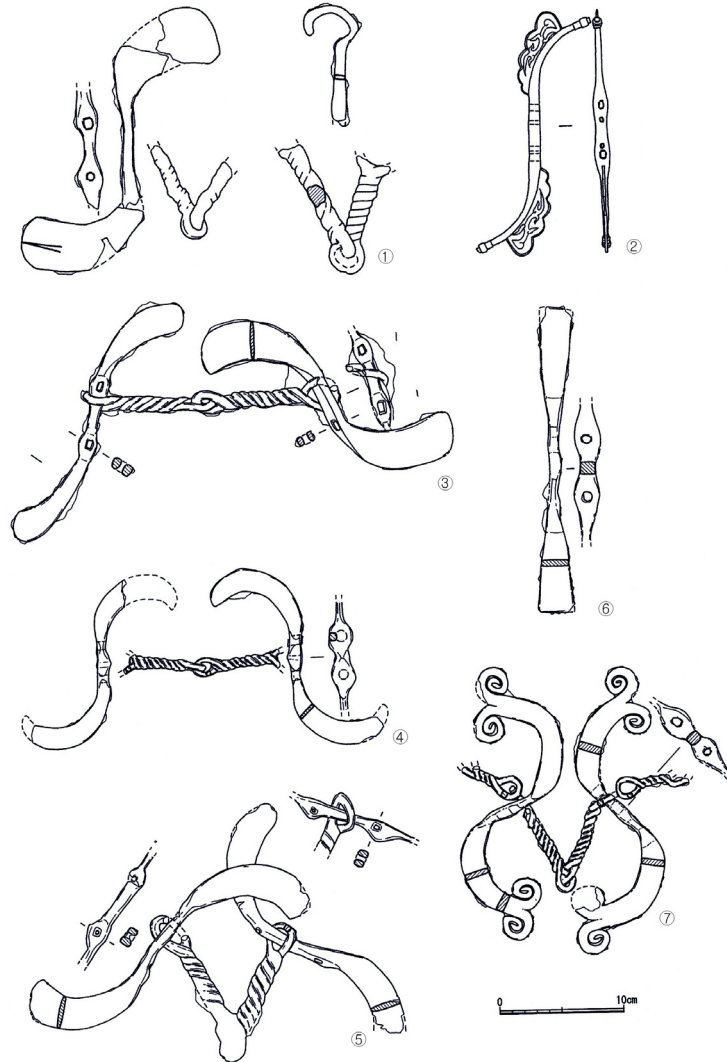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2孔式 재갈의 유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도 7). 이들은 대부분 원삼국시대에 해당되며 구멍크기는 대체로 0.4~0.8 cm 사이에 집중하고 있다. 실측도 등에서 확인된 구멍 단면의 수치가 약 0.4c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면계 자체의 폭도 짐작할 수 있다. 구멍크기에서 면계의 굵기는 0.8cm가 최대치이며 다양성이 엇보인다. 단지 구멍크기만을 보았을 때 몽골지역의 흉노 재갈보다는 면계가 얇은 편에 해당된다. 덧붙여서 원삼국 시대로 추정되는 1孔式 재갈과 3孔式 재갈의 구멍 폭은 각각 0.6cm 정도이다.²⁴⁾

표 4. 우리나라 출토 2孔式 재갈의 면계 폭(단위 : cm)

유적			구멍(1)	구멍(2)	비고(단면)
평양	상리	출토품	0.8	0.6	
	석암리	219호묘	0.6(小<0.4)	0.6(小<0.4)	
경주	평리동	출토품	0.8	0.8	
		출토품(청동계)	0.6	0.6	
	사라리	130호묘(고사리문)	0.8	0.4	
		130호묘	0.7	0.8	
경산	임당	A-I-145호묘	0.4		0.4
창원	다호리	48호묘	0.7	0.8	0.4
김해	양동리	162호묘	0.4	0.4	

²³⁾ 중국 동북지방 선진시대 자료를 활용한 손로는 정가와자 6502호묘 출토 재갈을 차마구로 규정 하였고(손로, 앞의 논문, 2012, 44쪽), 그 개체의 중간 입문 폭은 약 2.4cm 정도이다.

²⁴⁾ 울산 하대 43호묘, 포항 옥석리 115호묘 등의 출토품이 있다.



도 7. 우리나라 출토 2孔式 유례
 ① 상리 출토품 ② 석암리 219호묘 ③ 다호리 48호묘
 ④ 평리동 출토품 ⑤ 입당 A-I-145호묘 ⑥⑦ 사라리 130호묘

한편, 중국 동북지방 출토 재갈의 유례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5>.

중국 동북지방 출토 재갈의 첫 번째 특징은 재갈머추개의 형태가 타원형 板狀이라는 것이다. 이들 자료의 면계 폭을 보면, 안양 효민둔 154호묘, 조양 원대자묘 등 4세기 전반대의 출토품은 1.6~1.8cm 정도이며 두께 0.6cm로 유사

표 5. 중국 동북지방 출토 재갈(단위 : cm)

유적		입문 폭 (가로×세로)	비고 (행엽 입문 폭)
安陽	효민둔 154호묘	1.8×0.6	1.8(鉤:1.8)
朝陽	원대자묘	1.7×0.6	2.0(鉤:1.8)
朝陽	三合成묘	1.6×0.6	
朝陽	十二台鄉磚廠 88M1호 전실묘	3.2×0.6	1.4(鉤:1.0)-心
北票	西溝村채집품	2.2×0.8 (鉤: 1.6~2.8)	

한 형태를 띠고 있다. 사용된 개체 수가 적지만 면계 폭과 두께가 어느 정도 一定化 혹은 규격화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행엽에서는 구금구도 확인되는데 이 경우, 입문의 가로 폭은 약간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입문을 통과하는 구금구의 폭을 생각하면 조금 더 규격화된 형태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입문을 통과한 구금구로 면계를 고정할 때 면계의 폭에 따라 두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착안한다면 구금구의 사용은 면계의 폭과 두께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一定化 혹은 규격화된 상태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北票의 西溝村 채집품이나 朝陽의 十二台鄉磚廠 88M1호 전실묘 출토 품 등은 타원형의 재갈머추개를 가지고 있으나 입문의 가로 폭이 3cm전후로 상기의 유례들에 비해 넓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면계의 차이가 시기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계통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증가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V. 마구로 본 우리나라와 중국 동북지방의 교류

이제까지 살펴본 흉노, 부여, 선비 등을 포함한 중국 동북지방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출토 삼국시대 재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재갈 중 面繫을 변화상을 알 수 있는 재갈머추개의 입문, 표비에 부착된 입문용금구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도 8·9).

먼저 라마동 채집품으로 알려진 표비가 있다.²⁵⁾ 이 재갈은 양단에 방울이

²⁵⁾ 奈良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2004, 60·135쪽.

부착되어 있으며 몸체 중앙에 입문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鑿鈴’으로 불리는 것으로 전체길이가 13.4cm이며 입문 폭은²⁶⁾ 약 1.7×0.8cm 정도이다.

이와 유사한 유형의 우리나라 출토 입문이 달린 재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이 가운데 집안 만보정 242-1호묘와 충주 금릉동 78-1호묘 출토 재갈은 표비에 해당된다(도 5-④·⑤). 전자의 경우, 보고자는 洛陽燒溝漢墓(632호묘) 출토 재갈과의 비교를 통해 3세기 말로 연대를 부여하고 있다.²⁷⁾ 후자인 충주 금릉동 78-1호묘는 보고자에 의해 3세기 중엽으로 비정되고 있다. 鑿의 형태는 2孔式 재갈과 매우 유사하지만 입문이 부착된 형태이다. 입문을 통과하는 면계의 폭은 2.4~2.8cm로 2孔式 재갈의 두 구멍크기를 합친 만큼 넓은 폭이다. 그러나 前段階인 원삼국시대 2孔式 재갈의 경우, 구멍을 통과하는 면계의 두께가 최대한 구멍을 활용한다고 해도 구멍 폭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에 반해 집안 만보정 242-1호묘 출토품과 충주 금릉동 78-1호묘 출토품의 立聞자체는 길고 넓은 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 가로 폭인 2.4~2.8cm보다 넓은 면계, 그리고 이것보다 두꺼운 면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계 폭과 두께에 대한 규제가 2孔式 재갈의 것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출토 재갈의 성격에 대한 차이를 반영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원삼국시대 재갈, 즉 2孔式 재갈은 차마구로서, 삼국시대 재갈은 기승용으로서 각각 추정되고 있기도 한다.

표 6. 우리나라 출토 재갈 유례(1)(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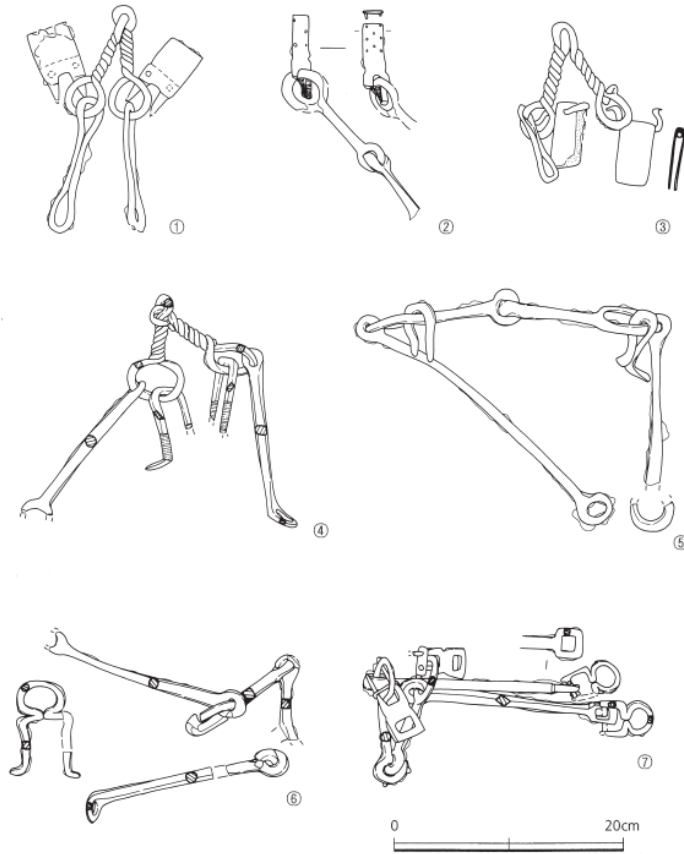
유적			입문 폭	비고
集安	만보정	242-1호묘	2.4~2.8 약 4.8(세로)	표비
충주	금릉동	78-1호묘	2.0~3.0 약 1.6(세로)	표비
부산	복천동	71호분	3.0	표비 (棒狀掛留式)

상기의 두 가지 예는 鑿에 입문이 고정된 유례인데 이와 유사한 형태로 탈 부착이 가능한 것이 棒狀掛留式 입문용금구이다.²⁸⁾ 봉상괘류식은 하나의 철제

26) 公表된 도면에서 필자가 측정한 수치이다(田立坤, 『鑿鑿考』, 『대성동고분 발굴 20주년 기념 大成洞古墳群과 東亞細亞』, 김해문화원, 2010, 89쪽).

27) 諫早直人, 앞의 책, 2012, 103쪽.

28) 장운정, 『韓半島三國時代の轡の地域色』, 『考古學研究』50-2, 고고학연구회, 2003, 85~104쪽 ; 『古代 馬具로 본 東아시아 사회』, 학연문화사, 2012, 116~146쪽.



도 8. 유기질제 표비의 입문용금구 유례

①② 판상병류식(부산 복천동 69호분, 청주 신봉동 80호분) ③ 봉상 패류식 a류(부산 복천동 71호분) ④⑤ 봉상패류식 b류(상주 신흥리 라89호분·가28호분) ⑥ 봉상패류식 c류(상주 신흥리 라28호분) ⑦ 판상패류식(부산 복천동 10호분)

봉을 구부려 입문의 형태를 만들어 유기질제 鑣에 고착하는 입문용금구이다. 이들 유례에는 부산 복천동 71호분·21호분²⁹⁾, 경주 황남동 109호 4곽·월성로 가1호분, 김해 대성동 11호분, 청주 신봉동 8호분, 상주 신흥리 다7호분·라89호분·라20호분·라28호분·라111호분, 대구 비산동 37-1호분·경산 임당 E16호분 등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유례인 부산 복천동 71호분은 4세기 제3사분기로 추정되고 있으며,³⁰⁾ 입문과 결합된 철판의 가로 폭은 약 3.0

²⁹⁾ 부산 복천동 21호분 출토품은 棒狀 내부 가로 폭은 약 1.3cm 정도이다.

³⁰⁾ 신경철, 앞의 논문, 1994, 277~280쪽.

cm 정도이다. 그리고 이들 입문용금구를 표비에 고착한 후 확보된 세로 폭은 1~5cm 등으로 다양하여 면계의 규격과 장방형으로 된 재갈 입문의 공간 활용은 집안 만보정 242-1호묘와 충주 금릉동 78-1호묘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기질제 표비에 사용된 입문용금구 중 板狀鋌留式에는 부산 복천동 69호분 출토품이 있고 4세기 제2사분기로 추정되고 있다.³¹⁾ 이것은 2장의 장방형 板部와 교침부가 일체로 만들어져 있고 면계의 가죽끈을 장방형의 판부 사이에 끼워 못으로 고정한 형태로 가로 폭이 약 3.4cm 정도이다. 또한 충주 두정동 I-5호분 유례의 경우, 철제 표비이며 면계는 2줄 나누어져 있지만 면계를 못으로 고정하는 방식은 유사하다. 전체적인 가로 폭은 약 3.0cm 정도이다. 이 외에도 부산 복천동 60호분과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품이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모두 철제 표비이다. 모두 면계를 못으로 고정하였고 입문의 가로 폭은 각각 4.0cm, 3.6cm 정도이다.

재갈멈추개의 형태가 상기의 것과는 다른 타원형이지만 면계와 입문을 못으로 고정하는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품 역시 가로 폭이 3.2cm 정도이다. 재갈멈추개가 막대형인 표비이면서 재질이 목재 혹은 철제이거나 재갈멈추개가 타원형이든지 재갈멈추개의 형태와 재질에 상관없이 면계와 입문을 못으로 고정·연결하는 방식에 사용된 면계의 폭은 대략 3~4cm 전후이며 면계의 두께도 棒狀의 입문보다는 규격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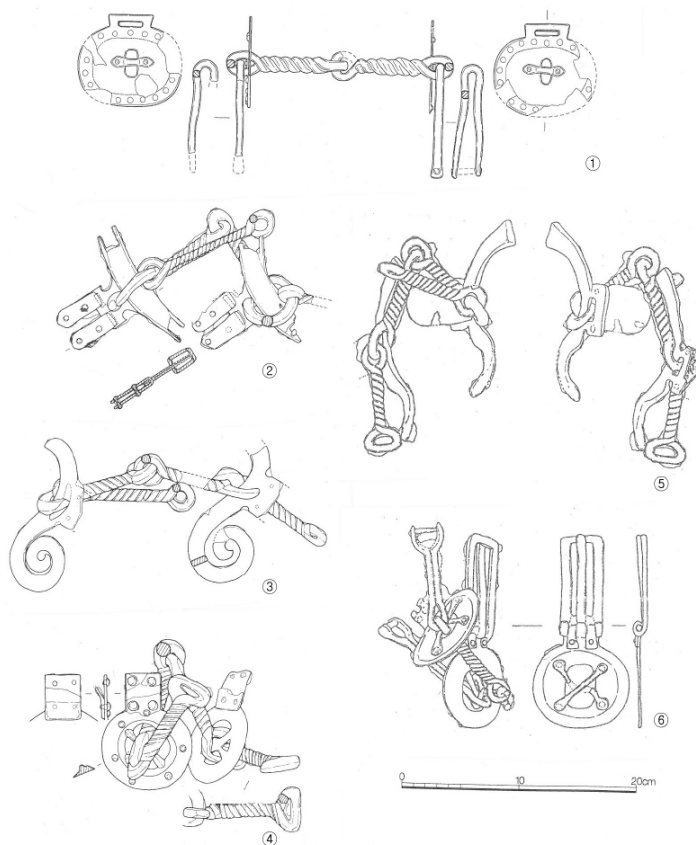
한편 흉노, 부여, 선비 등과 함께 우리나라 원삼국시대 출토품에서 확인된 2孔式과 유사한 흐름을 가진 것으로 입문에 구멍이 2개 뚫린 雙孔立闕式이 있다. 그 유례에는 김해 대성동 2호분과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품 등이 알려져 있다<표 7>. 이들은 재갈멈추개가 막대형인 棒狀으로 동일하나 각각 목재와 철제

표 7. 우리나라 출토 재갈 유례(2)(단위 : cm)

유적			입문 폭 (가로×세로)	비고
김해	대성동	2호분	3.6(전체 폭) 1.2×0.4(구멍1) 1.2×0.4(구멍2)	목재 鑿
부산	복천동	38호분	4.0(전체 폭) 1.3×0.5(구멍1) 1.4×0.5(구멍2)	철제표비

31) 신경철, 앞의 논문, 1994, 277~280쪽.

로 제작되어 재질적 차이를 나타낸다. 각각 면계 긴 쪽의 폭은 1.2~1.4cm 정도이며 2개의 구멍사이 공백을 합친 구멍 전체크기는 대략 3.6~4cm 정도이다. 이 유형은 재갈멈추개의 재질적 차이에 상관없이 입문 구멍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원삼국시대의 2孔式보다는 규칙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입문 구멍의 길이와 폭에 맞게 면계 사이즈가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야 하는 것은 원삼국시대의 2孔式과 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흉노, 부여, 선비 등과 함께 우리나라 원삼국시대 출토품의 2孔式보다는 입문 구멍이 넓은 편에 속한다.



도 9. 板狀과 棒狀의 재갈멈추개 유례

- ① 경주 월성로 가6호분 ②~④ 김해 대성동 2호분
 ⑤ 부산 복천동 60호분 ⑥ 김해 대성동 42호분

상기의 雙孔立聞式을 하나의 구멍으로 제작한 입문은 재갈멈추개가 타원형인 것과 유기질제 표비에 부착된 입문용금구 板狀掛留式 등이 있다. 먼저 타원형 재갈멈추개에 부착된 입문의 크기를 계측하면 다음과 같다<표 8>. 여기서 경산 임당 G-6호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약 2cm정도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주 월성로 가13호분은 복천동 31·32호분과 병행하고 4세기 중엽에서 후엽으로 추정되고 있다.³²⁾ 경산 임당 G-6호분의 경우, 공반하는 토기에 근거하여 경주 월성로 가13호분보다 이른 시기로 파악되고 있다.³³⁾ 상기에 서술한 표비에 부착된 雙孔立聞式과 유기질제 표비에 공반하는 입문용금구 板狀掛留式 및 재갈멈추개 막대형, 타원형에 상관없이 모두 확인되고 있는 면계를 못을 고정하고 있는 유례 등 이들의 면계 규격은 대략 3~4cm 전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산 임당 G-6호분 출토품에 주목하면 하나의 면계를 사용하고 장방형 입문이라는 형태적 변화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초기단계에는 기존의 면계 규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주에서는 월성로 가13호분 단계, 김해 대성동고분에서는 41호분, 42호분³⁴⁾ 단계³⁵⁾부터 2.0cm 이내의 면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동북지방 타원형 재갈멈추개의 입문 규격이 1.6~1.8cm 사이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출토품도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우리나라 출토 재갈 유례(3)(단위 : cm)

유적			입문 규격	재갈멈추개
경산	임당	G-6호분	3.0×1.0	타원형
경주	월성로	가13호분	2.0	타원형
김해	대성동	41호분	2.0(복원 폭)	타원형
	대성동	42호분	2.0	타원형

³²⁾ 諫早直人, 앞의 책, 2012, 169쪽.

³³⁾ 장용석, 『IV. 考察』, 『慶山林堂洞遺蹟Ⅱ : G地區 5·6호분』, 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192~195쪽.

³⁴⁾ 김해 대성동 42호분 출토품은 타원형 재갈멈추개에 교구형 입문이 부착되어 면계를 고정하고 있으며 교구 내부 폭은 2.0cm 정도이다. 여기에 착안하면 면계 폭 역시 2.0cm 미만으로 추정할 수 있다.

³⁵⁾ 김해 대성동고분군 내의 절대연대 위치는 상이하더라도 상대서열은 2호분→1호분, 41호분, 42호분 등의 순으로 규정할 수 있다. 참고로 대성동 2호분은 부산 복천동 69호분보다 늦고 71호분과는 같은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신경철, 앞의 논문, 1994, 281~283쪽; 諫早直人, 앞의 책, 2012, 142~147쪽).

참고로 환상형 재갈멈추개의 유례 중 경주 황남동 110호분 출토품은 약 1.5cm, 부산 복천동 10호분 출토품의 경우 각각 약 1.6cm, 약 1.8cm 정도이며 경산 조영 CⅡ-2호분 역시 약 1.5cm 정도로 대부분 2cm 미만에 해당된다. 경주지역 출토 5세기 전반기 행엽 또한 2cm 미만이다<표 9>. 중국 동북지방 출토품이 1.4~2.0cm 전후에 분포하고 있는 것과 우리나라 출토품도 같은 맥락에 속한다.

표 9. 5세기 전반대의 경주지역 출토 행엽(단위 : cm)

출토유구	입문 가로	입문 세로	도면번호
황남동 110호분(心)	1.2	0.6	2-1
	1.3	0.6	2-2
황남동 110호분(魚)	1.2	0.5	8-1
	1.3	0.4	8-2
	1.5	0.5	8-4
황남대총 남분(心)	1.65	0.45	126-1
	1.5	0.45	126-2
	1.7	0.45	126-4
	1.9	0.6	126-7
황남대총 남분(魚)	2.0	0.4	62-1(鉤)
	1.95	0.45	126-3
	1.95	0.45	126-6
	1.43	0.3	127-1(鉤)
	1.53	0.3	127-2(鉤)
	1.53	0.3	127-3(鉤)
	1.44	0.38	127-4(鉤)
	1.4	0.38	127-5(鉤)

다음은 유기질제 표비에 사용된 입문용금구 板狀掛留式의 유례를 보면 경주 사라리 31호분, 청주 신봉동 71호분·신봉동 74호분·신봉동 97-1호분·신봉동 83년 채집품·신봉동 66호분, 부산 복천동 10호분, 상주 신흥리 라 28호분, 창녕 교동 3호분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유형에서 이른 단계에 속하는 부산 복천동 10호분은 복천동고분군 내 상대적인 순서에서 69호분→60호분, 71호분→31·32호분, 35호분→21·22호분, 그리고 다음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5세기 전반기에 해당된다. 板狀掛留式 입문용금구의 구멍크기는 대략 가로 1.0~1.6cm, 세로 0.2~1.0cm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이들 면계의 폭과 두께를 가늠할 수 있다<표 10>. 이것은 상기의 재갈멈추개가 타원형, 환상형에 사용된 면계의 규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먼저 2孔式의 경우, 흉노 등 북방에서 확인된 것은 0.5~1.0cm 사이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삼국시대 자료가 대부분이며 면계의 규격은 대략 0.4~0.8cm 사이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재갈멈추개의 형태나 재갈멈추개 자체에 구멍을 2개 뚫어 면계를 통과시키는 방법, 그리고 구멍에 의해 면계의 폭과 두께가 규제되는 점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板狀掛留式 입문용금구의 규격(단위 : cm)

출토유구		입문 가로	입문 세로
경주	사라리 31호분	1.4	0.2
청주	신봉동 71호분	1.5	0.4
		1.6	0.4
	신봉동 74호분	1.1	0.3
	신봉동 97-1호분	1.3	0.5
창녕	교동 3호분	1.0	0.7
		1.2	0.6~0.9
상주	신흥리 라28호분	1.3	0.9
부산	복천동 10호분	1.6	1.0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재갈멈추개의 형태와 입문형태 및 면계 고정방식 등 다양한 유형이 알려져 있다. 재갈멈추개의 형태는 크게 棒狀(금속제, 유기질제 표비)과 板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문형태 역시 棒狀과 板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재갈멈추개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棒狀이 板狀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재갈멈추개가 棒狀인 경우, 중국 동북지방은 라마동 채집품이 알려져 있으며 입문 내부의 가로 폭은 약 1.7cm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棒狀의 고착식 입문과 별도로 제작된 棒狀掛留式 입문용금구의 규격에 의하면 각각 약 3cm 전후와 1.3cm부터 다양한 크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재갈멈추개에 부착된 입문의 가로 폭 그대로를 면계 규격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입문 세로 폭 또한 1~5cm로 다양하여 棒狀 입문의 장방형 공간에 대한 활용도, 즉 면계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면계의 폭과 두께에 대한 제약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산 복천동 69호분 출토품은 유기질제 표비에 부착된 입문용금구가 板狀鉤留式로서 하나의 면계를 철판에 대고 못으로 고정하는 방

법이다. 이 때 면계 폭을 추정할 수 있는 철판 폭은 대략 3cm 전후로 4cm 미만에 해당된다. 그리고 부산 복천동 60호분과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품 역시 철제 표비이며 면계를 못으로 고정하였다. 각각 4.0cm, 3.6cm 정도이다. 상기의 두 유형이 입문에 바로 면계를 고정하는 방법이었던 것에 반해 입문에 구멍이 2개 뚫린 雙孔立聞式은 면계를 입문에 통과시키는 방법에 해당된다. 김해 대성동 2호분과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품 등이 여기에 속하며 2개의 구멍사이 공백을 합친 구멍 전체크기는 대략 3.6~4cm 정도이며 입문의 각 구멍크기는 1.2~1.4cm 사이이다. 이들은 입문이 棒狀인 것과 비교하면 면계가 움직일 수 있는 활용 공간이 좁기 때문에 입문 크기에 근거한 면계의 최대 폭은 대략 3cm 전후로 4cm 미만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입문의 길이와 폭에 맞게 면계 사이즈가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입문형태가 板狀인 것 중에서 면계를 못으로 고정하는 방법은 재갈뭇추가 棒狀인 유례에서 먼저 알려져 있으며 재갈뭇추가 재질도 유기질제, 금속제 모두 확인되고 있다. 이 유형은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품 중 재갈뭇추가 板狀인 것에서도 보이며³⁶⁾ 이 때 면계 폭을 추정할 수 있는 철판 폭은 대략 3cm 전후로 4cm 미만에 해당된다. 이 점에 착안한다면 김해 대성동 2호분 단계, 혹은 김해지역에서 재갈뭇추가 형태에 관계없이 면계의 규격과 고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재갈뭇추가 板狀인 경우, 먼저 입문형태가 棒狀인 유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입문형태가 板狀인 유례는 중국 동북지방의 4세기대 유적인 안양 효민둔 154호묘, 조양 원대자묘 등에서 확인되며 입문의 크기는 1.6~1.8cm 정도이다. 그 외 北票의 西溝村 채집품, 朝陽의 十二台鄉磚廠 88M1호 전실묘 출토품 등은 입문의 가로 폭이 3cm전후에 해당되어 크기의 다양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 유형은 입문형태가 면계의 규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산 입당 G-6호분을 제외하면 약 2cm이내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재갈뭇추가 타원형이외에도 환상형인 유례들 역시 2cm 미만에 해당되고 있어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갈뭇추가 입문을 그대로 면계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변수가 적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 유형에서 면계의 규격화 또는 일반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재갈뭇추가 棒狀에서 板狀으로의 변화는 단지 재갈뭇추가 형태적 차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갈뭇추개를

³⁶⁾ 김해 대성동 2호분에서는 재갈 3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棒狀의 재갈뭇추가 2점 중 1점도 여기에 속한다.

고정하는 입문형태 및 면계의 규격에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는 馬裝의 변화와도 관계지을 수 있을 것이다. 희소한 유례이지만 입문이 교구형인 김해 대성동 42호분 출토품은 면계를 교구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교구 내부의 가로 폭이 약 2.0cm 정도이다. 그리고 5세기대로 추정되는 유기질제 표비에 사용된 입문용금구 중 이와 형태가 유사한 板狀掛留式의 구멍크기 역시 약 2cm이내인 1.0~1.6cm에 분포하고 있다. 이 경우는 板狀의 재갈멈추개에서 주로 사용되던 입문과 면계의 규격이 棒狀의 재갈멈추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획기는 신라로 대두되는 경주에서는 월성로 가6호분, 금관가야의 중심지 김해에서는 대성동 41호분 단계부터라고 할 수 있다.

VI. 맺음말

이제까지 마구에 대한 연구 성과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남부지방 마구문화의 출발점은 모두 중국 동북지방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구를 연구할 때 가장 먼저 보고문의 유물 기록과 실제 유물관찰을 통해 기본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중국 동북지방 자료에는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민족의 계통이라는, 예를 들면 선비계, 부여계, 흉노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구자체만으로 이들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출토된 유적이 선비, 혹은 부여로 추정할 수 있는 것과 마구 혹은 기마문화를 어떻게 관련시키고 구분할 것이며 그들의 분포영역, 특색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하는 시도에서 중국 동북지방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기원전후에 몽골지역까지 활약했던 흉노가 남긴 마구 일부를 언급하였다. 마구의 부품 중에서도 안장, 재갈, 등자, 행엽 등을 말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面繫에 주목하였다. 접근방법은 중국 동북지방과 우리나라 남부지방 출토 마구, 그 가운데 재갈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특히 재갈멈추개의 형태, 재갈멈추개와 연결된 입문형태 및 면계 고정방식 등을 통해 양 지역의 재갈이 서로 연동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지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흉노의 2孔式 재갈은 우리나라 원삼국시대 자료와의 비교에서 재갈멈추개의 형태나 재갈멈추개 자체에 구멍을 2개 뚫어 면계를 통과

시키는 방법, 그리고 구멍에 의해 면계의 폭과 두께가 규제되는 점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재갈이라는 한 형식만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馬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장과 등자, 행엽, 교구 등의 형태, 재질, 입문 등에 주목하여 시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마장의 전체적인 복원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투고일 2014년 1월 25일 |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12일 |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28일 ■

참고문헌

- 최병현, 『古新羅 鏡子考』, 『崇實史學』1, 崇田大學校史學會, 1983.
- 신경철, 『古式鏡子考』, 『釜大史學』9, 釜山大學校 史學會, 1985.
- _____, 『伽耶의 武具와 馬具 : 甲冑와 鏡子を 중심으로』, 『國史館論叢』7, 국사편찬위원회, 1989.
- 김두철, 『三國時代 轡의 研究 : 轡의 系統研究를 中心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최병현,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 _____, 『新羅古墳 編年の 諸問題 : 慶州·月城路·福泉洞·大成洞古墳의 상대편년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30, 한국고고학회, 1993.
- 신경철, 『加耶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大史學』18, 釜山大學校 史學會, 1994.
- _____,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 金官加耶 이해의 一端』, 『釜大史學』19, 釜山大學校 史學會, 1995.
- 이희준, 『경주 皇南大塚의 연대』, 『嶺南考古學』17, 영남고고학회, 1995.
- _____, 『경주 월성로 가-13호 積石木槨墳의 연대와 의의』, 『碩晤尹容鎮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1996.
- 신경철, 『福泉洞古墳群의 甲冑와 馬具』, 『제1회 부산광역시립북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 가야사 복원을 위한 북천동고분군의 재조명』, 부산광역시립북천박물관, 1997.
-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1997.
- 김두철, 『신라마구연구의 몇 과제』, 『신라문화』1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8.
- 박양진, 『墓葬 資料의 社會的 分析과 楡樹 老河深墓地의 一考察』, 『韓國上古史學報』29, 한국상고사학회, 1998.
- 이희준, 『4~5세기 신라의 고고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이난영·김두철, 『韓國의 馬具』,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9.
- 류창환, 『環板轡의 編年과 分布』, 『伽倻文化』13, (재)가야문화연구원, 2000.
- 박양진, 『중국 동북지방의 鮮卑 무덤 연구』, 『百濟研究』32, 백제연구소, 2000.
- 성정용, 『中西部 馬韓地域의 百濟領域化過程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장용석, 「IV. 考察」, 『慶山林堂洞遺蹟Ⅱ : G地區 5·6호분』, 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 박중균, 「百濟初期馬具小考 : 淸州 鳳鳴洞 出土 轡를 中心으로」, 『호서사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百濟文化의 몇 問題』, 호서사학회·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2.
- 장윤정, 「韓半島三國時代の轡の地域色」, 『考古學研究』50, 고고학연구회, 2003.
- 奈良文化財研究所, 『三燕文物精粹(日本語版)』, 2004.
- 이상률, 「三國時代 馬具의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희준, 「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 『韓國考古學報』59, 한국고고학회, 2006.
- 諫早直人, 「製作技術로 본 夫餘의 轡와 韓半島 南部의 初期 轡」, 『嶺南考古學』43, 영남고고학회, 2007.
- 류창환, 「加耶馬具의 研究」,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희준, 『신라고고학연구』, (주)사회평론, 2007.
- 국립중앙박물관, 『몽골 흉노무덤자료집성』, 2008.
- 김대환·諫早直人·김은경, 「慶州 皇南洞 110號墳 出土 馬具 再報告」, 『繼往開來』7, 영남대학교박물관, 2008.
- 강인욱, 「흉노와 동아시아 : 흉노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구축을 겸하여」, 『부경대학교·중앙아시아학회 2010년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고대문화 속의 흉노』, 중앙아시아학회·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 田立坤, 「鸞鑣考」, 『대성동고분 발굴 20주년 기념 大成洞古墳群과 東亞細亞』, 김해문화원, 2010.
- 諫早直人, 『東北アジアにおける騎馬文化の考古學的研究』, 雄山閣, 2012.
- 손로, 「古代 東北아시아 車馬具와 騎馬具의 變遷」,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은석, 「고대 동북아세아 계(繫)에 관한 연구」, 『中央考古研究』11, 중앙문화재연구원, 2012.
- 장윤정, 『古代 馬具로 본 東아시아 사회』, 학연문화사, 2012.
- 장은정, 「匈奴係 鑣轡의 확산과 고대 동아시아의 기마 문화 수용」, 『中央 아시아 研究』17, 중앙아시아학회, 2012.

Abstract

Exchanges between Korea and Northeast China in Terms of Harness

Chang, Yoon-Chung

The starting point of harness culture in the southern region of Korea is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Nevertheless, however, there's too lack of information about harness discovered in the Chinese region despite the relics of horse equipment found in northeast China explain culturally and considerable the harness culture of this countr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lso discussed some pieces of harness that were left over by the Huns who went beyond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and advanced further to the Mongolian region around before and after Christ. The study found that the shape of the bit string, the shape of the connection ring to which that string is connected and the way of fixing the bridle were closely linked between the two regions.

First of all, bridles discovered in the northern region of Asia, which was dominated by the Huns in the ancient times, usually had 2 holes, each 0.5~1.0cm in diameter, but were diverse in dimension. While, bridles found in Korea were made in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and in most cases had holes each 0.4~0.8cm in diameter. Bridles of the northern Asia and this country are very similar to each other in that they were used as the bit string itself or passed through the 2 holes of the bit string in which the width and thickness of the bridle was regulated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hole.

Next, the shape of the bit string, the shape of the connection ring to which that string is connected and the way of fixing the bridle became

various as the Three Kingdoms Period began. The bit strip of that period largely two main shapes, that is, rod shape(metal, organic bridle bit) and flat shape. Similarly, the connection ring also had two main shapes, rod and flat. Like the bit string, the connection ring first had the rod shape and then the flat one. While, bit strings of rod shape found in Korea were in most cases about 3cm, below 4cm in maximum bridle width when the bridle stuck to the bit string, the connection ring metal of leather-tied rod style which was compatible with the organic bridle bit, the flat connection ring of double-hole style and the connection ring metal of iron-nailed flat style were examined and compared in terms of shape and dimension. The connection ring of flat shape allowed a space for the bridle narrower than the connection ring of rod shape, making presumable that the former ring was less in size tolerance.

Meanwhile, bit strings of flat shape were discovered from Ancient Tomb No. 154 at the Anyang Hoymindun remains and the Crown Prince Win's Tomb in the Joyang remains, both of which were formed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in the 4th century. Those strings were 1.6~1.8cm in connection ring size. Bit strings of flat shape found in Korea were all below 2cm in connection ring size, except those from Ancient Tomb No. G-6 at the Imdang remains in Gyeongsan. Other bit strings of oval and round shapes that were discovered in the country were also below 2cm in connection ring size. This indicates that in the country, the shape and dimension of the bridle was standardized or generalized. This change presumably began since Wolseongro Ancient Tomb No. 6 was formed in Gyeongju in the Shilla Period and Daeseongdong Ancient Tomb No. 41 in Kimhae as the herb of Geumgwan Gaya.

Key Words : Korea,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Mongolian region, the Huns, the Xianbei, Buyeo, harness, bit, bridle

